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의 문학번역품질평가 이론에
기반한 번역텍스트 분석 및 평가:
*The Vegetarian*의 경우

구 상 본
(동국대)

1. 서론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사업을 둘러싸고 번역평가와 번역비평이 국내에서 큰 논의를 이루어왔다.¹⁾ 영미문학연구회는 ‘충실성’과 ‘가독성’을 기준으로 국내의 다양한 번역본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는데, 번역평가라는 틀 자체와 그

* Beatriz María Rodríguez Rodríguez. 이하 로드리게스로 지칭한다.

1) 김영희. (2008). 「문학번역 평가의 의미와 한계」,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문학, 좋은 번역을 찾아서1』,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조성원. (2006).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소고」,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평가의 기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이형진은 이러한 양적 평가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문학번역이 평가라는 상대적 가치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그는 문학번역은 번역가의 해석적 글 읽기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했다(이형진 2008: 110). 조성원은 “원작/원저자/원문화 중심의 주관적이고도 규정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식으로서 기술번역학적 번역인식을 제안했다(조성원 2006: 118). 한편 정혜용은 “번역비평의 객관성 논의가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문학번역 평가는 종언을 고했으며, “이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아니라 평가방식의 유연성과 평가자의 자율성이 문학번역비평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정혜용 2009: 313). 본 논문은 문학번역평가나 문학번역비평에 적합한 로드리게스(Rodriguez 2007)의 문학번역품질평가(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²⁾ 모델을 소개하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문으로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The Vegetarian*을 분석텍스트로 하여 번역평가 및 비평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번역평가 모델 중에서 로드리게스의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드리게스의 LTQA는 문학번역비평에 적합한 평가모델이기 때문이다. 문학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번역평가 모델은 문학성 개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장르, 사용역, 문체, 작가의 철학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문학성은 작품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작품에 대해 적합한 평가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모델이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로드리게스 2007: 31).

둘째, 번역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의 측면에서 LTQA는 연구의 진행과 함께 번역규범을 파악하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유연하면서 다양한 평가관련 요소를 고려, 선택하는 폭넓은 모델이다. 분석 대상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의 범주도 역사적 문화적 요소, 맥락적 요소, 텍스트 외적(extra textual) 요소, 텍스트적 요소, 화용적 요소, 논증적 요소, 수사적 요소 등 다양하게 구분가능하며, 번역비평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도 다양하고 유연해야 한다.

2) 로드리게스의 문학번역품질평가 모델을 이후로는 LTQA 모델로 지칭하기로 한다.

해당 분석텍스트의 일차적인 분석 목적은 LTQA 모델을 통해 번역가가 적용한 번역규범을 파악하고, 작품의 번역비평에 적합한 평가기준의 적용을 통해서 분석텍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비평을 실시하는 것이다.

2. 분석모델의 소개

2.1. LTQA 개요 및 선행연구

이 작업의 목적은 ST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물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며, 문학번역분석에 적용할 평가모델 규정 및 수집 데이터의 분석에 있다. 해당 연구의 구성에는 번역비평 분야의 번역평가가 포함된다. 이어서 TT와 ST의 객관적인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면서, TT의 품질 평가에 적용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한다. 번역평가는 번역비평 일부로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Rodriguez 2007: 15, Hatim and Mason 1997: 197에서 재인용).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비평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각 텍스트의 특성,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특징을 되돌아보면서, TT와 ST의 유연한 분석을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번역의 방법과 규범이 발견되고, 적용 기준이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비평적 분석에 의한 TT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번역물의 가치를 결정하면서 거시적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가 수행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³⁾.

각 텍스트의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보편적인 분석 모델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처방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도달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텍스트의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연구의 진행에 따라 경험적으로(*a posteriori*) 규정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 및 평가 모델을 적용한다(로드리게스 2007: 31). LTQA는 문학번역만을 다루며, 분석은

3) 예를 들어, ST에 대한 TT의 충실성을 평가하거나, 특정한 번역물을 동일 원본에 대한 다른 번역물과 비교하여 평가하거나, TT의 목적이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일 등이다. 또한, 질적 평가 혹은 양적 평가가 가능하며, 이 두 어프로치의 특징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로드리게스 2007: 15).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단계는 TT 연구로서, TT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둘째 단계는 ST 분석으로서, TT에서 분석한 특징을 ST에도 적용한다. 셋째 단계는 두 텍스트의 세부적인 대조 또는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학번역물을 분석할 때, 각 텍스트가 특정한 문학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텍스트 유형, 저자, 관점, 저술 시기 등의 텍스트 외적 특징을 고려한다. 또한, 분석에서는 번역 단위 간 등가를 고려하여 등가의 차원을 결정한다. 이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단계는 번역규범을 발견하며, 넷째 단계인 번역물 평가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번역비평의 중심개념을 이룬다. 각 텍스트의 외적 특성을 비교한 후, 텍스트의 내적 특성을 다룬다. 모든 비교 분석은 변환(shift)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최종단계인 평가에서는, 두 텍스트 연구의 구체적인 비교 부분을 포함하며, TT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 및 시행된 모든 분석단계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로드리게스 2007: 42-45).

평가분석을 위한 번역단위는 선형적/거시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단위인 텍스트와 구조적/미시텍스트 차원의 소규모 분석단위의 두 가지가 있다(로드리게스 2007: 44). 분석단위의 연구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준수한 규범을 확정함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진다. 모나 베이커의 말처럼 규범이란 "주어진 문화나 텍스트 체계에서 기타 전략보다 우선하여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번역전략"이다(로드리게스 2007: 28). 규범은 ST의 기능과 비교해야 하는 TT의 기능을 결정한다. 적절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TT 독자에 대한 용인성(acceptability)이 필요하지만, '충분성(adequacy)'은 ST에 초점을 두며 ST의 규범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번역은 이 두 가능성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번역가가 채택한 번역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LTQA는 변환의 분석을 시행하며 '번역전략'이란 용어 대신 '변환 범주(categories of shift)'라는 용어를 선택한다⁴⁾. 이러한 변환 범주는 각각의 분석을 통해 발견되며 번역과정에서 변환의 변화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번역평가 시에 변환 범주의 적절한 역할을

4) 이것은 van Leuven-Zwart가 제시한 번역전략의 분류이다. 그녀는 '변환의 분류(classification of shifts)'로 지칭했으며, 그 범주는 modulation, modification, mutation 등이다(로드리게스 2007: 29).

결정한다.

번역평가에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평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군의 기준을 통해서 모든 분석사항을 판단하지만 텍스트의 모든 다양한 사항의 분석, 판단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텍스트 유형에는 다른 비평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문학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장르가 다양하고 번역품질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로드리게스 2007: 30). 판단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최상의 방법은, 각 텍스트를 분석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하면서 평가기준⁵⁾을 경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로드리게스 2007: 31). 결국, 모든 문학텍스트에 대해 적용 가능한 표준적인 평가기준은 불가능하므로, 각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진행에 따라 문학번역물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가운데, 적절하고 시행 가능하며, 유연한 평가기준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2.2. LTQA 모델의 평가기준

로드리게스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연구 진행단계마다 범위가 규정되는 유연하고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그녀는 기술번역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정혜용 2009: 311), 번역작품의 수용상황이나 번역 간의 영향 관계가 뚜렷한 16세기 스페인 작품 *El Lazarillo de Tormes* 영어 번역본⁶⁾을 사례로 하고, ‘논리적 기준, 기능적 기준, 역사적 문화적 기준’ 등을 바탕으로 LTQA 모델을 제시했다(로드리게스 2006). 그녀는 문학번역 내에서도 장르별로 적합한 규범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각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규범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

5) 평가기준의 예로서, 텍스트 유형, 텍스트 기능, 역사적 요인, 맥락, 일관성(coherence), 결속성(cohesion), 번역의 목적, 용인성, 상호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로드리게스 2007: 32-34).

6) 로드리게스의 LTQA 모델의 분석텍스트:

ST: 16세기 스페인 작품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El Lazarillo de Tormes*)』, 1554년 출간

TT: 영국 데이빗 로랜드(David Rowland)의 영역본 *The Pleasant Historie of Lazarillo de Tormes, a Spaniarde, Wherein Is Contained His Marveilous Deeds and Life with the Straunge Adventures Which Happened to Him in the Service of Sundrie Masters*, 1586년 출간

한다(정혜용 2009: 311). 로드리게스는 종전의 평가모델에 대해서 번역오류의 열거나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에 국한했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의하면 평가란 각 텍스트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규정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로드리게스 2006, 164). 특징한 평가기준을 데이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ST 및 TT를 모든 레벨에서 세세하게 대조 분석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문학 번역텍스트를 평가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두 텍스트의 거시텍스트적 특징에 대한 대조 분석, 분석단위, 변환 및 변화의 범주, 번역장치 및 평가기준을 포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각 텍스트의 구체적 특성에 적합한,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모델을 구성하여 TT의 특성과 객관성을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로드리게스 2006, 165-166).

로드리게스는 로랜드의 TT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적합한 평가기준으로서 텍스트적 요소, 일관성 및 결속성, 상황, 프랑스 번역물의 영향 7), 수용, 목적의 6가지를 적용했다(로드리게스 2006, 163-181). 텍스트적 요소는 텍스트의 유형 또는 장르를 말하며, TT가 영국 최초의 악당 소설이라는 사실이 고려된다. 일관성과 결속성은 TT의 또 다른 특성이다. 또한, TT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인 1586년에 출판되었으며, 그 당시 번역가는 텍스트 번역 시 개입이 자유로웠으며, TT에서 다수의 확장, 축소, 변조가 확인된다. 로랜드는 어떤 구절의 번역에서 변안, 확장, 각주를 포함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번역은 유럽 내에서 영어와 영국 문화의 역할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프랑스 번역의 영향이라는 기준에서는, 영어텍스트의 구조, 여백의 각주나 주석을 통해 그 영향이 확인된다. 주로 확장, 축소, 변조, 언어 유희 등으로 이루어지는 변환은 프랑스 번역의 영향이며, 당시 영어로 번역된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로드리게스 2006: 175-176). TT에 대한 분석단위 연구에서 로드리게스가 실제로 설정한 변환 범주는 아래 표1과 같다.

7) 여기서 프랑스 번역물의 영향이란, 스페인의 원작 소설『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에 대한 프랑스 번역물이 이미 존재했었고, 로랜드가 영어로 번역할 때 스페인의 원작과 함께 프랑스의 기존 번역물을 함께 참고한 것을 의미한다(로드리게스 2006, 173-176).

〈표 1〉 TT의 변환 범주⁸⁾

변환 범주	세분화
확장(expansion)	근거 있는 확장, 설명, 근거 없는 확장, 동어 반복(tautology), 창작
축소(reduction)	근거 있는 축소, 근거 없는 축소, 동어 반복의 축소
변조(modulation)	용어의 역(reversal term), 전체-부분, 원인-결과, 간접-직접화법, 비교-확인, 긍정-부정, 의문-긍정, 능동-수동
모사(calque)	세분화 없음
번안(adaptation)	"
치환(transposition)	"
재담(paronomasia)	"
반복(repetition)	"
의미 반전(antithesis)	"
관용어	직역 및 의역
속담	"
오류	이해, 틀린 용어, 확장, 축소, 프랑스 번역의 영향, 순서, 인칭, 수

또한, 로랜드의 TT가 수 세기에 걸쳐서 출판되고 있으므로, 목표언어 및 목표문화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음은 명백하다. 원작의 작가는 당시 스페인 사회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목적이었지만, 로랜드의 번역물의 목적은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 대한 풍자였다. 로랜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관습을 영국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원했고, TT의 서문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분석의 진행과 함께 평가기준이 확립되는 과정 중에 기준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특징을 지적한다(로드리게스 2006: 178). 영국 문학과 영국 문화의 관점에서 로랜드의 TT는 새로운 시각을 표현했지만 원작의 서술 기법을 유지했다. 평가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로랜드는 앞에서 언급한 번역상의 변환을 매우 적절하게 다루었다. 이처럼 상황, 목적, 프랑스 텍스트의 영향은 당시 많은 번역가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TT가 수세기에 걸쳐 재판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로드리게스 2006: 179).

8) 로드리게스 2007: 목차에서 요약, 인용

LTQA의 평가기준을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하딤과 메이슨 그리고 브뤼네트의 기준을 채택하면서, 해당 분석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텍스트적 요소, 일관성 및 결속성, 상황, 목적, 용인성 및 프랑스 번역의 영향 등의 기준이 TT 분석에서 추가로 설정되었다(로드리게스 2007: 54). 첫 번째 텍스트적 요소는 텍스트 유형과 관련 있으며, ST는 악당소설의 장르에 해당하며, TT는 영국 최초의 악당소설이다. 또한, 서술자, 관점, 문체를 포함한다. 두 번째 요소인 일관성 및 결속성은 모든 번역텍스트에 공통 적용되는 중심 개념으로, 논리 정보의 구조 및 담론의 부분들을 연결하는 언어적 전략과 관련이 있다. 로랜드 번역본은 관점 및 기타 연결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상황 기준은 번역본을 둘러싼 맥락, 주로 비언어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TT는 16세기 작품이므로, 저술 시기와 오늘날 평가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를 살펴야 한다. TT와 ST가 작성된 시기의 번역상의 관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T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배경으로서 역사적 요소의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기준으로서 목적은 번역과정에서 번역가의 목적에 관한 것이며, 기능적 어프로치에 따라 텍스트의 구체적인 기능/목적은 ST의 기능/목적과 비교하여 등가성을 확인한다. 목적 기준에는 번역과정에서 발주자의 역할도 포함된다. 용인성⁹⁾은 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번역의 품질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좌우된다. 용인성은 충분성과 반대되는데, 문학번역의 경우 이 양자 간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평가기준에 관한 모델은 유연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각각의 분석에서 평가기준을 경험적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객관적 어프로치가 이상적이지만 보편적인 평가기준의 틀은 가능하지 않다. 문학번역텍스트에 적용되는 기준은 구체적인 연구 시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로드리게스 2007: 59).

2.3. 분석방법

평가의 목표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최상의 방법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텍스트의 중요사항을 파악하고 품질평가를 하는 것이다. 평가의 요점과 기준은 TT와 ST의 분석에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번역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조 분석의 주요단계는 다음과 같다. TT의 텍스트 외적 및 텍스트 내적

9) 용인성은 TT가 목표문학/문화체계에 대해 갖는 관계를 지칭하기 위한 투리의 용어이다.

특성 분석, ST에도 같은 분석의 시행, 번역물에 대한 구체적 또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론, 최종적으로 TT의 품질평가를 위해 현재까지 입수한 데이터 및 모든 분석단계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적용한다.

LTQA 모델의 첫 단계는 TT의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이다. 목표문화 내에서 TT의 위치를 결정하고, 번역가, 소설의 구조, 간행 시기, TT의 서론, 서사 기법, 민속적 요소, 구성의 주제, 주요 인물의 이름의 의미, 악당소설 장르의 특성, 소설의 효과 및 목적 그리고 텍스트적 요소, 주로 언어적 요소를 고려한다. TT의 분석 후, 두 번째 단계로서 ST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ST와 TT의 비교 연구로서,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환을 포함하는 이 비교는 분석의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번역과정의 규범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규범 및 번역텍스트의 품질에 관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게 된다.

대조적 접근법에서 최초로 분석해야 할 것은 텍스트 외적 특성(텍스트 유형, 번역가, 간행 시기, 프롤로그, 주석 등)이다. 그다음 두 텍스트의 텍스트 내적 요소의 대조 연구에 특별히 주목한다. 분석단위 즉 세그먼트(segment)의 확립으로 번역변환의 파악 및 분류를 할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되는 두 분석단위는 세그먼트(선형적, 미시텍스트 차원)와 텍스트 자체(구조적, 거시텍스트 차원)이다.

3. 테버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의 분석

실제 적용 텍스트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 한강. 『채식주의자』(연작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중 첫 번째 작품) pp. 9-33. ST 중 pp. 9-22까지의 문장을 분석단위로 구분(1번부터 205번까지)하여 변환을 확인, 분석하고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TT: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pp. 11-33. ST(문장분석단위 1번부터 205번까지)에 상응하는 TT(pp. 11-23)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3.1. *The Vegetarian*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3.1.1. 텍스트 외적 요소: 결텍스트(paratext)¹⁰⁾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는 TT와 ST의 제목이자, 이 작품들의 같은 주제어이다. 제라르 주네트는『문턱』이란 책에서 결텍스트는 텍스트의 부속물로 물리적 장치인 판형, 장정, 종이, 글씨체, 자간, 행간, 표지, 표제지 외에 제목, 서문, 목차 등과 같이 책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본문 텍스트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페리텍스트와 책에 대한 논평이나 일기, 책광고 등과 같이 책의 외부에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관련된 에피텍스트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문턱’이란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결텍스트는 책, 저자, 출판자, 독자 사이에서 본문 텍스트를 읽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하며, 특히 책 제목은 책의 성격을 지시하는 동시에 책의 내용을 암시한다¹¹⁾. 따라서 제목은 같지만, 원본을 읽는 한국의 독자와 번역본을 읽는 영미권의 독자는 책을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부터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인식의 틀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즉,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와 영미 등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채식주의자는 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다르다. 그리고 개고기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과 서양인의 경우 극히 상반된다. 작품 속에서 개가 영혜의 다리를 물어뜯자 아버지가 그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동네를 일곱 바퀴를 돌도록 하여 기진하여 죽게 만드는 장면이 있다(한강 2017, 52-53). 이 부분은 개를 인간의 충실한 반려자를 이해하는 서양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동물 학대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사장이 마련한 부부동반 회식에서 이야기 전개도 전체적으로 채식주의자를 극히 부정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원천문화를 잘 전달하고 있다(한강 2017, 30-33).¹²⁾ 가족들이 합심하여 영혜에게 강제로 탕수육

10) 김순미는 번역비평에서 비평가들이 결텍스트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순미 2014: p. 79).

11) 한국고전번역원 웹페이지 고전산책 부유섭 글 중에서 인용함.

<http://www.itkc.or.kr/bbs/boardView.do?id=75&blIdx=32260&page=1&menuId=125&bc=6>

12) 원천문화와 목표문화 간의 인식의 차이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어사전은 차이점을 강조하여 “종교적, 금육적, 영양학적 따위의 이유로 고기를 피하고 채소, 과일, 곡물, 견과류만을 먹는 식생활을 지키거나 그

을 먹이려고 하는 장면)에 대해 ST 독자와 TT 독자의 반응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같은 단어지만 ST의 맥락과 TT의 맥락은 상반되며, 그 결과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 육식이 타인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영혜의 인식, 타인의 이해에 대한 난이성 등에 대해 같은 책의 제목을 통해서 ST가 원천문화의 독자에게 미치는 반응 강도에 비해 TT가 목표문화의 독자에게 미치는 충격과 영향의 강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채식주의자	7쪽
몽고반점	67쪽
나무 불꽃	149쪽
해설·허윤진	222쪽
작가의 말	245쪽
수록작품 발표 지면	248쪽

<i>The Vegetarian</i>	p. 9
<i>Mongolian Mark</i>	p. 61
<i>Flaming Trees</i>	p.127

원본은 연작소설 외에 해설과 작가의 말 등이 수록되어있지만, 번역본에는 번역가의 서문, 주석, 후기가 없이 연작소설의 텍스트에 대한 번역만 포함하고 있다. 번역본의 표지에는 작가 이름을 표기하고 있으며, 번역가의 이름은 첫 소설이 시작되기 직전 한쪽 페이지에 두 줄에 걸쳐서 ‘Han Kang’ 그리고 그 밑에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Deborah Smith”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번역본 표지의 짧은 서평들(총 34개)은 ‘Han’(3회), ‘Han Kang’(2회), ‘Kang’(1회), ‘The author’(1회), ‘This South Korean novel’(1회) 등으로 주로 ST와 작가를 명시했지만, 번역가에 대해서는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이라고 2회 지칭하고 있을 뿐이다. 베누티의 말처럼 번역본에서 데버라 스미스는 “보이지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영어사전은 “a person who does not eat meat : someone whose diet consists wholly of vegetables, fruits, grains, nuts, and sometimes eggs or dairy products”와 같이 개인의 성향으로 기술하였다.

않는(invisible)” 번역가가 되며, TT 독자는 번역본을 원본과 동일시하게 된다 (Munday 2012: 217-218).

3.1.2. 텍스트 내적 요소

1) 주제

TT가 전하는 주제와 ST가 전하는 주제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도 번역비평이 가능하다.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에 관해 ST와 TT는 유사점을 보인다. 우선 TT의 주제와 작품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맨 부커 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작품소개 글을 살펴보자.

영혜와 그녀의 남편은 보통사람들이다. 남편은 평범한 야심과 온건한 태도를 지녔으며, 어떤 중소기업의 과장이며, 영혜는 평범하면서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이다. 이들의 무난한 결혼생활은 영혜가 ‘식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기를 갈구하면서, 충격적인 진도된 행위를 나타내자 변화를 겪게 된다. 그녀의 반발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런 형태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불가능하고도 환상적이지만 나무가 되어 가는 상상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긴장하게 하고 혼란스러우며, 아름답기도 한 이 소설은 현대의 대한민국에 관한 소설이면서, 수치, 욕망 그리고 구속된 육체들인 서로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비틀거리는 시도를 그린 소설이다¹³⁾.

이어서 이 소설의 토론사항으로 “이 소설을 읽고, 권력과 음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소설 전체적으로 구속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라고 적고 있다. 한편 허윤진은 ST의 해설 ‘열정은 수난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야수성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처벌의 한 형태로 ‘자기파괴’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남의 살’이 맛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의 살’을 베어먹고 물어뜯는 식육의 행위가 지닌 파괴력에 전율한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먹는

13) 맨 부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의 *Vegetarian* 작품소개란의 글을 인용함(필자가 번역).
<http://themanbookerprize.com/sites/manbosamjo/files/uploadedfiles/files/The%20Vegetarian.pdf>

것에 대한 모종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한강 2017, p. 232).

ST의 출판사인 창비의 작품소개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 영혜 주위의 인물들은 육식을(영혜 남편), 혹은 영혜의 몸과 몽고반점 그리고 자신의 예술혼을(영혜 형부) 지독하게 욕망한다. 그들의 욕망은 결국 누군가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고 끔찍한 기억을 남긴다. 인간의 욕망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생명이 있는 한, 그 대상이 무엇이든간에 욕망할 수밖에 없는 동물적인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포기한 영혜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영혜로 표상되는 식물적인 상상력의 경지는 소설가 한강의 작품세계를 가로지르는 소설 미학이며, 이야기로서든 상상력으로서든 감각으로서든 우리 소설의 차원을 확장시키는 시도임에 분명하다(창비사『채식주의자』작품소개)¹⁴⁾.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좋은 TT가 나올 수 있는 ST의 조건은 인류 공통의 문제 혹은 한국적 특수성을 취급하는 것(박진임 2004: 100)으로, 앞의 예들은 *The Vegetarian*의 ST인 『채식주의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맨 부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의 작품 안내에서 말하는 TT의 주제와 비교했을 때, ST의 주제는 둘 다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2) 확장: 부가, 설명

ST에 대한 부가, 설명 등을 통해서 TT가 확장된 사례(총 75회, 22%)를 확인하였다.

- (1) (ST) 그럴 때 아내는 마치 자신이 끌려온 중군위안부라도 되는 듯 멍한 얼굴로 어둠속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p. 40)
- (TT) Once that had happened, she lay there in the dark staring up at the ceiling, her face blank, as though she were a "**comfort woman**" dragged in against her will, and **I was the Japanese soldier demanding her services**. (p. 38)

14) http://www.changbi.com/books/8646?board_id=7330

3) 축소:

ST에 대한 부분 혹은 전체 생략을 통해서 TT가 축소된 사례(총 39회, 11%)를 확인하였다.

- (2) (ST) 결혼한 뒤 아내는 집에서 아예 브래지어를 벗고 지냈다. (p. 12)
- (TT) (전체 생략) (p. 13)

4) 직역

ST의 어순, 단어, 표현 등에 충실한 직역은 총 39회(11%)로 확인되었다.

- (3) (ST)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p. 9)
- (TT) To be frank, the first time I met her I wasn't even attracted to her. (p. 11)

5) 변조

변조의 유형(총 57회, 16%)은 관점(행위 주체)의 변화(35회, 10%), 일반화/구체화(10회, 3%), 반대의 부정(8회, 2%), 원인/효과, 부정/긍정, 부분/다른 부분, 단어 대체(각각 1회) 등으로 나뉜다¹⁵⁾.

(1) 관점의 변화

- (4) (ST)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p. 64)
- (TT) My legs carried me towards her, a movement which I could not for the life of me control. (p. 52)

(2) 일반화/구체화

- (5) (ST)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매고, 셔츠의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p. 18)

15) 여기서 변조에 대한 세분화는 번역문에서 발생하는 변환에 대한 세밀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 비네(Vinay)와 다블네(Darbelnet)의 기준을 일부 인용하였는데(Munday, 2012: 86-90), 이것은 작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기준의 적용 여지를 인정하는 LTQA 모델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로드리게스 2007: 7).

(TT) I ran my fingers through my hair, did up my tie, and attempted to smooth out the creases in my shirt. (p. 19)

6) 결속성¹⁶⁾

결속성은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을 말한다(로드리게스 2007: 33, Brunette 2000: 175에서 재인용). 접속사를 추가한 문법적 결속과 반복을 통한 어휘적 결속이 확인되었다.

(7) (ST)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두 세 살 어린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자라서는 넉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며, 내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서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했다. (p. 10)

(TT) I've always inclined towards the middle course in life. At school I chose to boss around those who were two or three years my junior, and with whom I could act the ringleader... and **later** I chose which college to apply to based on my chances of obtaining a scholarship ... **Ultimately**, I settled for a job where I would be provided with a decent monthly salary. (p. 4)

(8) (ST)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젓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p. 31)

(TT) ‘It seems to me that **one shouldn’t be too narrow-minded when it comes to food.**’
‘People who arbitrarily cut out this or that food, even through they’re not actually allergic to anything - that’s what I would call **narrow-minded.**’ the executive director’s wife chimed in; she had been sneaking sideways glances at my wife’s breasts for some time now. (p. 23)

16) 결속성을 통한 텍스트분석은 미승혜의 「소통을 위한 문학번역가의 개입-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71-76.)」을 인용했다.

7) 치환

치환은 발화의 일부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미를 보전하면서 품사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TT에서 치환의 예는 총 53회(15%)가 확인된다.

(9) (ST)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p. 9)

(TT) As she came up to the table where I was waiting, I couldn't help but notice her shoes-the plainest black shoes imaginable. (p. 11)

8) 오역(error/mismatch) 혹은 번역가의 창작(creation) - 서사적 기준의 적용

필자는 ST와 TT의 불일치가 단순히 번역가의 오역이 아니며, 번역가의 창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택한다.¹⁷⁾ 번역가의 창작 또는 오역으로 파악되는 TT의 예는 총 35회(10%)이다. 테버라 스미스는 자신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번역가는 작가이기도 한가?”라는 질문에,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다. 번역에는 창조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므로, 번역은 창조적 활동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녀는 “번역가가 작가라는 뜻은 아니다. 완벽하거나 결론적인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문학과 언어에 가져다준다. ST에서 호응을 거둔 요소들을 작품과 함께 독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원본 독자와 같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고 작가가 만족한다면,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¹⁸⁾. 이처럼 테버라 스미스의 번역 규범은 번역텍스트의 독자의 용인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용인성을 높이는 데에

17) 번역비평에 대한 베르만의 언급은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Not only is criticism positive, but this positivity is its truth: a purely negative criticism is not a true criticism.”(Berman: 2009, 26) 물론 베르만도 평범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번역물에 대해서는 criticism이나 critique이 아닌 ‘characteristic’이란 용어를 적용했다. (Berman: 2009. 26)

18) *Examining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Reach*, In News by Dennis Abrams, Publishing Perspectives, 2017. 1. 18.
<https://publishingperspectives.com/2017/01/korean-translation-literature-globalization/>

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번역상의 기법들 외에 번역가 자신의 창작 방법도 있다. 때로는 창작과 오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ST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TT의 독자에 대해 용인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번역가는 스스로 행위의 주체나 동작, 상태, 상황 등을 바꾸는 데, 등가를 중시하는 번역평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번역의 오류 또는 불일치라고 하지만, 작가가 의도적으로 번역물의 용인성을 높이기 위해 TT의 독자가 처한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성의 기준은 문학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녀의 창작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써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서사적 평가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를 위해 (1) ST 중심의 사고(예, 충실성 치중)에서 벗어나야 하고, (2) TT를 하나의 작품으로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10) (ST)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p. 9)

(TT) Middling height, bobbed hair, neither long nor short, jaundiced, sickly-looking skin, (생략) somewhat prominent cheekbones, **her timid, sallow aspect told me all I needed to know.** (p. 11)

ST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TT를 재번역하면 “그녀의 겁먹은 듯하고 누르스름한 외모가 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말해주었다”이다. ST와 TT는 의미상으로 전혀 별개인, 번역가의 창작이다. ST에서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

19) Peter Lee는 House의 평가이론 중 문화적 필터를 보완하기 위해 서사적 필터의 도입을 제시했다. “Julian House의 번역평가모델은 Halliday의 체계적 기능언어학을 최초로 번역평가에 적용한 사례로 인정되며 House의 개정판 번역평가모델은 번역평가 연구에 적극 논의되고 있으나, 문학번역 평가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본 논문은 House의 번역평가모델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역할을 하는 ‘문화적 필터’(cultural filter)가 문학번역 평가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서사적 필터(narrative filter)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관련 서사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한글판과 영어번역판을 대상으로 질적 비교분석을 실행하였다.....” (Lee 2012: 205-206)

하는 듯한'이 TT에서 'told me all I needed to know'로 바뀌었다. 평가나 가치 판단의 대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있어 보이는'과 '~하는 듯한'이란 표현을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교체하였는데, 서사적 관점에서는 테너(tenor)가 헤테로글로스(타의견 인지)에서 모노글로스(타의견 차단)로 변화한 것이다.

(11) (ST)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p. 11)

(TT) On the other hand, if I'd had one of those wives whose phones ring on and off all day long with calls from friends or co-workers, or whose nagging periodically leads to screaming rows with their husbands,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 (p. 13)

ST의 내용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하는 아내를 의미하지만, 테버라 스미스의 번역은 직장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그녀 자신의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담화의 대상이 되는 아내의 종류가 달라졌다. ST의 '~ 하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가 TT에서 '~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ST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나타내지만, TT는 가치판단이 배제되고 다소 객관화된, 상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지칭하므로, 주인공이자 서술자 자신의 심리 표현이면서 서사적 관점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narrator's voice)'가 변한 것이다.

(12) (ST)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와 나에게도 들렸다. (p. 37-38)

(TT) Contrary to what I'd hoped, my mother- and sister-in-law's efforts at persuasion had not the slightest influence on my wife's eating habits. At the weekend, the phone rang and my wife picked up. "Yeong-hye," my father-in-law bellowed, "are you still not eating meat?" He'd never used a telephone in his life, and I could hear his excited shouts emerging from the receiver. (p. 36)

원본에서는 장모가 주말에 주인공에게 전화했고, 장인은 딸에게 전화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인데, 테버라 스미스는 주말에 장인이 전화해서 아내가 받았는데, 장인이 호통을 치는 장면으로 번역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는 명백한 오역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작가를 목표문화의 독자에게로 끌어오려는 번역가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목표문화권의 독자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ST의 ‘~이면 ~물었다’라는 반복적 표현이 TT에서는 ‘At the weekend, the phone rang and my wife picked up.’이라는 일회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즉 서사적 기준에서는 필드(field)의 빈도가 변화한 것이다. 오류나 불일치를 단순히 오역으로 간주하기에는 TT에서의 등장 빈도, 즉 사용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다른 작가의 번역본과 비교하더라도 테버라 스미스의 번역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녀가 번역은 창작이라고 주장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녀의 TT와 비교할 다른 TT는 캐나다 번역가 자네트 홍(Janet Hong)의 작품으로, 『채식주의자』 연작 중 1부만을 번역하였으며, 하버드대학에서 간행하는 『아젤리아』에 소개된 바 있다²⁰⁾.

ST: 한강의 ST
 TT1: 테버라 스미스의 TT
 TT2: 자네트 홍의 TT

20) ST, TT1, TT2에 관한 다음의 분석 내용은 미국번역가협회(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에서 2016년 11월에 주최한 제57차 미국번역가협회 연차콘퍼런스에서 발표된, Paul B. Gallagher와 Elena Chang의 ‘Pragmatic Issues in Korean-to-English Translations’를 인용하였다.

(13) ST: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TT1: Before my wife turned vegetarian, I'd always thought of her as completely unremarkable in every way.

TT2: Until the day my wife turned vegetarian, I didn't think there was anything special about her.

문장 전반부는 TT1이 TT2보다 더 직역에 가깝지만, 후반부에서 TT2는 더 직설적이고, TT1은 텍스트에 변화를 주어 다시 쓰기를 했다. 물론 두 TT 모두 상응하는 ST에 대해 “엄격한 직역”이 아니다.

(14) ST: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A)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B).

TT1: Middling height, bobbed hair neither long nor short, jaundiced, sickly-looking skin, somewhat prominent cheekbones, her timid, sallow aspect told me all I needed to know.

TT2: She wasn't short, but neither was she tall.

Her bob cut wasn't short, but neither was she tall.

She had chapped sallow skin, Asian eyes with no double eyelids, and protruding cheekbones.

She wore neutral colors, as if she were afraid of standing out.

TT1은 A에 대한 번역을 생략했으며, B는 자유롭게 번역했지만, TT2는 원문을 직역했다²¹⁾.

*The Vegetarian*의 오역을 단순히 오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번역가의 창작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박진임은 좋은 번역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문학성을 갖추고, 보편적 주제나 특수성을 지닌 주제를 다루는 좋은 ST의 존재, 둘째, ST의 언어와 TT의 언어를 모두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번역가, 셋째, ST와 TT의 기반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언급했다(박진임 2004: 100). 필자는 LTQA 모델 적용의 결과에 따라, 불일치를 단순히 오류

21) 하지만 TT2는 한 개의 문장인 원문을 네 개로 분리했다.

나 오역으로 단정하지 않고 좋은 번역에 필요한 번역가의 TT 언어 구사 능력이나 목표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번역가의 글쓰기로 간주하고자 한다²²⁾.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유사한 결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김가희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동일 번역문에 대해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으로 이해하였다. 즉 어휘 차원, 문맥 차원, 타문화 수용 차원에서 검토하였고, ST와 TT 간의 변환/일탈에 대해서 불일치, 오류, 오역이 아니라 번역가가 원문 해석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다시쓰기로 설명하였다(김가희 2016: 33-41). 한편 채식주의자 번역을 두고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김영신은 스피박(Spivak)의 주장을 따라, 한국 문학이나 기타 외국 문학은 일단 영어로 번역되면 애초의 이질성과 고유성은 중화되어, 상호 비슷하거나 영문학과 닮은 모습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인식에 따라, *The Vegetarian*은 번역된 한국 문학이라기보다 영문학의 리듬과 결(texture)로 다시 쓰였다고 평가한다(김영신 2016: 49-50).

9) 문장 유형의 변화(단문/중문/복문)

TT에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문장 유형 변화(총 25회, 7%)는 ST의 문장을 분리하거나 문장들을 합병하는 경우, 또한 분리와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5) (ST) 끓은 감자를 썰어넣은 닭도리탕은 어땠던가. 자작자작 매콤한 국물이 속살까지 배어든 그것을 나는 한자리에서 세 접시씩 비워내고 했다.

(TT) There had also been a thick chicken and duck soup with large chunks of potato, and a spicy broth packed full of tender clams and mussels, of which I could happily polish off there helpings in a single sitting.

22) 그럼에도 데버라 스미스가 ST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졌는지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녀는 KTLIT 작가인 알리 파크(Allie Park)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은 원전에 충실해야 하는가?”라는 파크의 질문에 “(통사론적으로 옮기는 것에) 충실하다는 말은 번역에 있어서는 낡았고 잘못 이끌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번역 대상인 원전을 읽은 대중들의 경험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ST는 두 개의 문장인데, TT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종합평가

로드리게스의 LTQA에 따라, 분석 대상인 ST와 TT를 각각 문장분석단위로 구분한 후 ST로부터 TT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환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번역가의 번역 규범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했다. 데버라 스미스는 번역을 창작으로 인식하였고, TT 독자의 용인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LTQA의 다양한 평가기준 및 문학적 평가기준인 서사적 기준도 충족하고 있음을 보였다. 아래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장분석단위(1~205번)에서 확인되는 총 352회의 변환 가운데, 확장(75회, 21%), 축소(39회, 11%), 치환(53회, 15%), 변조(57회, 16%), 직역(39회, 11%), 창작/오역(35회, 10%) 등은 높은 발생비율(10% 이상)을 보이고, 단문, 중문, 복문의 분리나 병합을 통한 문장 유형 변화(25회)는 7%로서 연결어(12회, 3%), 반복, 차용어, 문화소(각각 3회), 보상(2회), 관용어, 은유, 변안(각각 1회) 등과 함께 속한 낮은 발생비율의 변환(10% 미만)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데버라 스미스의 TT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 (1) 확장, 변조, 치환은 발생횟수 50회 이상의 **고빈도 변환범주**에 속한다.
- (2) 축소, 직역, 창작(오역)은 발생횟수 35~39회의 **중빈도 변환범주**에 속한다.
- (3) 기타 문장 유형 변화, 연결어, 반복, 차용어, 문화소, 보상 등은 발생횟수 2~25회의 **저빈도 변환범주**에 속한다.

(1)과 (2)를 근거로 데버라 스미스의 *Vegetarian*은 번역가의 글쓰기 전략을 잘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³⁾ (3)은 번역가의 번역전략 및 전략 구사의 일관성 및 타당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²⁴⁾ 이상의 번역 특징 및 적용된 평가기준

23) 이영훈은 문학번역평가의 심화평가 기준으로서 변형(문단 변형, 문장 변형)과 변조(표현 변조, 수사적 변조)는 번역자의 글쓰기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며, 번역평가자는 번역자에 따라서, 또 작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변형과 변조를 분석 및 해석한다고 하였다(이영훈, 구하나: 2009, 120).

에 따른 평가 결과, 데버라 스미스의 TT는 번역가의 창작 및 용인성을 중시하며, LTQA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번역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ST: 한강. 『채식주의자』(연작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중 첫 번째 작품) pp. 9-33. ST 중 pp. 9-22까지의 문장을 분석단위로 구분(1번부터 205번까지)하여 변환을 확인, 분석하여 평가기준 도출.

TT: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pp. 11-33. ST(문장분석단위 1번부터 205번까지)에 상응하는 TT(pp. 11-23)를 대상.

〈표 2〉 데버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평가기준 및 출현빈도
(문장분석단위 1번~205번)

평가기준	세분화	발생회수	비율(%)
확장	-	75	22
축소	-	39	11
치환	-	53	15
변조	관점의 변화	35	10
	반대의 부정	8	2
	일반화>구체화	10	3
	원인>효과, 부정>긍정, 부분>다른부분, 단어대체	4	1
	소계	57	16
직역	-	39	11
창작(오역)	-	35	10
문장유형변화	분리>합병	25	7
연결어	접속사/지시어	12	3
반복	-	3	1
차용어	-	3	1
문화소	-	3	1
기타	보상, 관용어, 은유, 변안	5	2
계		349	100

24) 문화어의 처리(치환에 의한 문화어 처리, 설명에 의한 문화어 처리)라는 평가항목은, 번역자가 ST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TT에 옮겨오기 위하여 어떠한 번역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 번역전략이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으로 텍스트의 완결성이 제시되었다(이영훈, 구하나: 2009, 120).

4. 맺는말

본 논문은 로드리게스의 LTQA 모델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역한 데버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을 분석텍스트로 삼아서, 번역비평 및 평가의 관점에서 문학번역텍스트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 LTQA 모델을 소개하고 그 모델 중 번역 규범 및 평가기준에 관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관련 규범과 기준을 도출 및 제시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LTQA 모델은 기존의 번역평가적 관점을 고수하지 않고 번역비평 및 평가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학텍스트 평가에 더 적합하다. 또한 분석텍스트의 특성을 연구의 진행과 함께 유연하게 반영하며, 텍스트 요소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역사적 문화적 기준, 상호텍스트성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폭넓게 고려하는 평가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버라 스미스의 TT는 ST에 대한 충실성의 강조보다는 번역을 창작으로 간주하고 TT 독자에 대한 수용을 중시하였다. 비록 로드리게스의 분석텍스트처럼 역사적으로 가치가 확립된 작품은 아니지만, *The Vegetarian*은 맨 부커상 수상 및 국내외적으로 일으킨 큰 반향으로 인해 향후 한국 문학 및 번역문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번역규범 및 번역전략 관점에서 이 작품을 ‘번역을 창작으로 이해한 글쓰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사적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재번역이 계속되고, 또한, *The Vegetarian*의 저자인 데버라 스미스가 활발한 작품활동을 진행 중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와 분석대상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번역비평 및 평가모델로서 LTQA의 확립을 위해서 번역규범 및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적 보완 및 체계화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작품 외에 다양한 유형의 분석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풍부한 적용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구하나. (2010). 「“용인가능한” 번역이란 무엇인가: 문제와 쟁점」, 『통번역학연구』 13(2): 1-28.
- 김가희. (2016).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Vegetarian*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9(3): 33-41.
- 김순미. (2014).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5(1): 51-83.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김영희. (2008). 「문학번역 평가의 의미와 한계」, 『안과밖(영미문학연구)』 24: 33-62.
- 김진아, 성초림, 이상원, 장현주, 이향. (2002). 「번역 품질평가에 관한 小考」, 『외국문학연구』(11): 85-123.
- 마승혜. (2016). 「소통을 위한 문학번역가의 개입 -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 2016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소 봄 학술대회 발표문, 71-76.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문학, 좋은 번역을 찾아서1』, 서울: 창비
- 이영훈. (2010). 「프랑스 명작소설 한국어 번역 연구를 위한 번역평가 시스템 개발」, 『통역과 번역』 12(2): 149-179.
- 이영훈, 구하나. (2009). 「프랑스명작 단편소설 번역평가 - 알퐁스 도데의 「상기네르의 등대 *Le Phare des sanguinaires*」의 경우-」, 『통역과 번역』 11(1): 120.
-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6(5): 89-112.
-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밖(영미문학연구)』 24: 86-112.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7: 299-316.
- 조성원. (2006).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 영미 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소고」, 『안과밖(영미문학연구)』 23: 96-119.
- Berman, Antoine. (2009).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excerpt), translated by Françoise Massardier-Kenny,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9, I-XX, 1-79.
- Brunette, Louise. (2000). ‘A Comparison of TQA Practices’. *The Translator* 6.2: 175.
- Cappelle, Bert. (2011). ‘Juliane House, Translation’, *English Text Construction* 4(2): 310-314.
- Gallagher, Paul B. and Chang, Elena. (2016). ‘Pragmatic Issues in Korean-to-English Translations’, in *Proceedings of the 57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13-22.
- Hatim and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7.
- House, J. (2006). ‘Text and context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8: 338-358.
- Hong, Janet. (2010). ‘Exerpt from The Vegetarian’, *AZALEA*, Vol.3,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 Cultur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 Lee, Peter. (2012). ‘The Case for a Narrative Filter in Juliane House’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odel – Focusing on Shin Kyung-Sook’s *Please Look After Mom* –’, *통번역학연구* 16(1): 205-240.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dríguez, Beatriz María Rodríguez. (2006). ‘Criteria in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proposal applied to David Rowland’s translation (1586) of El Lazarillo De Tormes’, *Revista Canaria De Estudios Ingleses*, 53: 163-181.
- Rodríguez Rodríguez, Beatriz M. (2007).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ünchen: LINCOM EUROPA.

인터넷 자료/기사

맨 부커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의 *Vegetarian*에 관한 *Reader's Guide*.

<http://themanbookerprize.com/sites/manbosamjo/files/uploadedfiles/files/The%20Vegetarian.pdf>.

부유섭 (2017. 2. 6) 「옛 책의 파라텍스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문, 2017년 2월 10일 검색.

<http://www.itkc.or.kr/bbs/boardView.do?id=75&bIdx=32260&page=1&menuId=125&bc=6>.

Abrams, Dennis (2017. 1.18) 'Examining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Reach', *Publishing Perspectives*, 18 Jan. Available at <https://publishingperspectives.com/2017/01/korean-translation-literature-globalization/>.

창비사 『채식주의자』 작품소개.

http://www.changbi.com/books/8646?board_id=7330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분석 텍스트

ST: 한강. (2007). 『채식주의자』. 파주: (주)창비.

TT/TT1: Deborah Smith. (2015). *The Vegetarian*. London/New York, Hogarth.

TT2: Hong, Janet. (2010). Exerpt from *The Vegetarian*. *AZALEA*, Vol. 3.

[Abstract]

Literary Transl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Based On

B. M. Rodríguez Rodríguez's LTQA:

The Case of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Koo, Sang-Bon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ntended to introduce and apply Rodríguez Rodríguez's LTQA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odel to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LTQA is a translation evaluation/criticism model specially designed for literary translation. It uses the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ST and TT with consideration of extra textual factors as well as textual ones. It reviews many standards and selects appropriate ones among them. *The Vegetarian* is evaluated and criticised based on parameters suggested by LTQA including cultural factor. Especially, it is evaluated as a good translation according to LTQA. For further research, it is required to conduct corpus analysis with the related data accumulation.

▶ Key Words: LTQA, translation evaluation/criticism, assessment criteria, contrastive analysis, segment, shift

구상본

동국대 박사과정 재학

sangbonk@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비평, 화용론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